



200년 전 문헌 속 생물을 찾아가는 여행, 《현산어보를 찾아서》

이태원 《현산어보를 찾아서》 저자

지금도 마산의 한 서점에서 《자산어보》 번역본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기쁨과 흥분이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 나라 최고最古의 해양생물학서인 《자산어보》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책이 번역까지 되어 버젓이 출판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선 놀랐고, 책을 읽으면서 200년 전의 저술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치밀한 관찰과 과학적인 묘사에 또 한 번 감탄했다. 그러나 일단 흥분이 가라앉고 나자 곧 아쉬움이 밀려왔다. 번역본 자체가 놀라운 학문적 성과이긴 했지만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고어투의 문체나 지나치게 간결한 주석이 부담스러웠고, 군데군데 오역도 눈에 띄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체가 밝혀져 있지 않은 생물들이 너무 많았다. 나는 이 생물들의 정체를 모두 밝혀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원문을 다시 번역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도감을 찾고 논문을 뒤적이며 책에 나와 있는 수수께끼 같은 이름들을 실제의 생물과 하나씩 대응시켜 나갔다. 그 과정은 흥미로웠지만 문헌조사만으로 이러한 작업을 완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우선 관련자료 자체가 너무나 빈약했고, 자료에 나와 있는 설명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생물들이 즐비했다. 가끔 가까운 해변을 거닐면서 실물을 확인하기도 했지만 모든 생물들을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유일한 해결책은 직접 현지를 답사하는 것이었다. 출판사의 지원을 받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현지답사를 계획했는데, 워낙 왕래가 힘든 섬인 관계로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 가능한 한 적은 횟수의 답사로 최대의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질문거리와 기초자료를 철저히 준비했고, 효과적인 인터뷰를 위해 디지털 녹음기와 카메라, 노트북을 따로 마련했다. 또한 현지에 가더라도 생물을 직접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 분명했으므로 수십권의 생물도감을 미리 준비했다. 40, 50킬로그램에 육박하는 배낭을 메고 돌아다니는 일은 끔찍했지만 인터뷰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가는 곳마다 다양한 지식과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가진 주민들은 아낌없이 취재에 응해 주었고,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책에 나오는 생물뿐만 아니라 흑산도의 문화, 역사, 민속, 언어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바닷가에서 만난 꼬마 아이들까지도 자청해서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주었다.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정약전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일었다.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이런 책을 저술할 수 있었던 말인가. 정약전에 대한 자료도 빈약하긴

이 책은 200년 전의 문헌을 찾아다니는 여정이다. 그 여정 속에서 나는 수많은 생물을 만나고, 그 생물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 생물의 이름을 찾아냈다. 이 책은 200년 전의 문헌을 찾아다니는 여정이다. 그 여정 속에서 나는 수많은 생물을 만나고, 그 생물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 생물의 이름을 찾아냈다. 이 책은 200년 전의 문헌을 찾아다니는 여정이다. 그 여정 속에서 나는 수많은 생물을 만나고, 그 생물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 생물의 이름을 찾아냈다.

마찬가지였다. 남아 있는 자료를 억지로 주워 모으고, 아우 정약용이 남긴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양수리 생가를 방문하여 문중 사람들을 만나고, 연구모임에도 가입했다. 정약전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정약전은 생물 외에도 천문, 역사, 지리, 기상, 물리, 수학, 철학, 음악 등 다방면에 걸쳐 탁월한 지식과 식견을 가진 대학자였다. 실학의 집대성자로 불리는 정약용도 그에 대해 존경과 찬탄을 아끼지 않았고, 자신의 저술을 일일이 감수받으려 할 정도였으니 그 학식의 깊이를 알 만하다. 정약전의 학문은 머릿속의 이론으로만 머물지 않았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나 관찰과 실험을 통해 이를 직접 확인하려 했다. 집에서 바늘구멍 사진기의 원리를 실험하는가 하면, 지구설과 지전설을 주장하기도 했고, 조수와 신기루의 원리를 탐구했으며, 지구 의를 제작하여 새로운 방식의 지도를 제작하려 하기도 했다. 그의 손에서 《현산어보》라는 책이 쓰여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자료수집차 들렀던 우이도에서 《표해시말》(우이도 주민 문순득의 동남아, 중국에 걸친 표류담을 취재한 기록)과 《송정사의》(소나무 정책에 대한 논문) 정약전의 저서 두 권을 발견한 것은 커다란 행운이었다. 특히 《송정사의》는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정약전의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민본주의적 개혁정치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 없이 소중한 자료였다.

여러 편의 필사본을 대조하여 오역을 바로잡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중 책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낼 수 있었다. 우이도에 머물렀던 유암 선생의 문집 내용으로부터 《茲山魚譜》가 《현산어보》로 읽혔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제까지의 통설과는 달리 이 책이 정약전의 단독저술이 아니라 정약용의 제자였던 이청과의 공동저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써 정약전이 외딴섬에서 어떻게 수많은 중국문헌들을 참고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밀도 간단히 풀리게 되었다. 《현산어보》의 고중부분은 정약용과 함께 강진에 머물며 많은 서책을 참조할 수 있었던 이청에 의해 작성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책 전체에서 정약전이 쓴 부분과 이청이 쓴 부분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발견한 것도 커다란 성과였다. 흑산도 섬주민으로 정약전의 저술작업을 도운 장창대의 내력을 밝혀낸 것도 인상적인 일이었다. 정약전은 《현산어보》의 서문에서 장창대를 사물에 대한 통찰력과 과학적인 사고력을 갖춘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 조그만 어선을 얻어 타고 외딴섬으로 건너가 족보를 뒤지고, 숲을 헤매어 다닌 끝에 가문의 내력을 알아내고 그의 묘소를 찾아냈을 때의 감동은 대단한 것이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정약전이 당시에 어떻게 이처럼 과학적인 저술을 완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찬탄과 놀라움은 점차 왜 후대에 그의 학문적 성과가 계승되지 않았는지, 왜 우리나라에서는 근대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아쉬움으로 바뀌었다. 누구도 결론을 내리기 힘든 문제지만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정약용은 〈기예론〉이란 글에서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기예가 정교해진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당시 서양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자유롭고 활발한 학문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각국의 학자들은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룩한 성과를 한꺼번에 취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달랐다. 주변국들의 새로운 학문적 성과를 받아들이는 데 인색했고, 거의 유일한 지식의 공급처였던 중국마저도 만주족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는 철저히 무시하고 백안시하기 일쑤였다. 나라 안의 인재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치열한 당파싸움은 근대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진 정약전을 외지로 몰아냈고, 굳건한 신분제는 재기 넘치는 학자였던 이청과 과학자로서 뛰어난 역량을 갖추었던 장창대를 각각 아전의 아들이란 이유로, 작은 섬의 일개 촌부라는 이유로 초야에 묻히게 만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나라에서 그나마 있는 사람들까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으니 서양과 경쟁이 될 리 만무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외국의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국내의 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한글서체**